

업계소식

#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제** 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5월17일 충북 음성군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가 주최한 건설기능경기대회는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선발된 건설기능인 271명이 참가해 건축배관, 전기용접 등 13개 직종에서 자웅을 겨뤘다. 특히 올해는 2003년 북한을 탈출한 이 모씨(전기용접, 롯데건설)가 참가해 눈길을 끌

었다. 새터민이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국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5명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여성 참가자도 지난해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해 건설기능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조적 종목에 출전한 양한수(만 62세)씨가 최고령자로, 전산응용토목제도 종목의 임초은(만 19세)양이 최연소자로 출전기록을 남겼다.

권홍사 회장은 대회사에서 “15회에 이르는 건설기능경기를 통해 기능인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 우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일조해 왔

업계소식



▲ 건설단체 단체장들과 심사위원장이 건설기능경기대회 건축배관부문 수험생의 시험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왼쪽부터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상흠 심사위원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대회는 직종별로 1위 1명, 2위 2명, 3위 3명 등 모두 78명의 입상자를 선발, 상금 및 상패와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또 각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 상장과 함께 전국 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1, 2, 3위 입상자는 국내외 산업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건단련은 이와 함께 대회유공자와 이번 대회에서 많은 입상자를 배

출한 기업에 대해 올 연말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

출한 기업에 대해 올 연말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

출한 기업에 대해 올 연말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

출한 기업에 대해 올 연말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

출한 기업에 대해 올 연말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

출한 기업에 대해 올 연말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